

간호사 칼럼

윤기주 간호사(PICU2)



어느덧 8월,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 병원 주변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 갑니다. 저는 2014년 입사하여 소아중환자실에서 첫 시작의 설렘을 간직한 채 벌써 4년차 간호사가 되어 환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칼럼을 준비하며 저는 그 동안 소아중환자실에서 함께 했던 환아들을 떠올려 보았고 특히 대화를 많이 나눴던 청소년 환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년 환아들은 중환자실에 내려온 상황에 많은 불안감을 느꼈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질병 때문에 좌절되면서 두려움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환아들을 간호하면서 처음에는 환아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환아들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간호를 하게 되었고 이 환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함을 통해 중환자실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인했던 한 환아가 기억에 남습니다. 15세 남자 환아로 작년 9월 AML로 조혈모세포 이식 후 치료를 받던 중 호중구백반이 악화되어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tracheostomy, ECMO, 페이스까지 받으며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아중환자실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아는 중환자실 입실 후 불안감이 심하여 사소한 것들에도 콜벨을 많이 누르고 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뿐 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가 콜벨이 울리는 즉시 환아의 이름을 부르며 다들 반사적으로 다가갈 정도였습니다. 환아는 tracheostomy, thoracentesis 등 계속적인 치료를 하며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숨쉬어야 하나요? 관이 어떻게 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슴에 있는 배액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등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환아가 입을 오물오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엇이 불편한 것은 아닐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tracheostomy를 하면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입 운동을 해두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환아의 굳은 의지가 기특하여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일 때 환아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하냐는 물음을 항상 했고 기분이 좋다는 답변과 미소에 힘을 얻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은 환아가 편안하게 있길 바라며 담당간호사가 아니어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가가 병원 밖 얘기도 들려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주거나 환아의 얘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물병을 쥐어주며 운동 열심히 해야 병동 올라갈 수 있다고 잔소리하며 재활 운동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어 환아와 저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병동 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희망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환아는 주변 PHO 친구들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속되는 치료에 기다림의 한계를 느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도 같이 우울해지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환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ECMO까지 적용하며 많은 약을 달고 기나긴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또한 환아 방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딱 차 있는 드레싱 재료들과 기계들 틈에서 일하고 나오면 땀 범벅으로 젖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Sedative 약들을 달고 있음에도 alert 하게 모든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환아는 “제가 죽나요? 제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방 밖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의료진, 걱정스런 보호자, 지쳐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환아와 의료진 모두에게 기나긴 힘든 시간들이었기에 그 말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ICU News

MICU1

- ELNEC Critical palliative care 과정 (8/11~12) : 박윤하, 오해연, 송현승, 김너은

NSICU

- 부서 이동 (8/16) : 장경희 (상기이식센터 → NSICU)
- 결원 : 장경희 (8/25)

PICU1

- 7월 신입간호사 : 서지현
- PICU 워크샵 (8/8)
- 소아청소년간호과정 : 이슬기, 조호정, 박진희, 손지예, 안유리

ACU

- 부서 이동 (8/1) : 박수연 (MAT → ACU)
- 몽골 해외 의료봉사 (8/5~10) : 이진주
- 부서 Care Round (8/29)
- 응급의료센터 야유회 (8/30) : 동강 래프팅
- 2분기 고복합환 우수직원 수상 (8/31) : 최진

MICU2

- 지역병원 경평장간 참석자 미팅 (8/24) : 임은옥
-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8/30~31) : 장인영

NRICU

- 해외연수 : 김정연 (John's Hopkins 병원, 8/26~9/22)
- 배덕대대학교 학생 견학 (8/24)

NICU1

- 기차편 길병원 NICU 벤치마킹 (8/4)
- 병원신생아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샵 참석 (8/26)

MAT

- 부서이동 (8/1) : 김다혜 (SICU2 → MAT)
- 해외연수 (8/27~9/22) : 손진숙
- BNP (8/10) : 정현경, 최은주
-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주론 (8/19) : 신유정, 이주리, 최희연
-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8/21) : 최은주

SICU1

- 8월 시작 : 박보경
- ELNEC Critical palliative care 과정 (8/11~12) : 이진주 UM, 문영은, 박재용
- CS Skill UP 과정 (8/11) : 이정은, 김민희

CSICU

- 복원업 (8/22)
- CLS 순환식 (CN3 순환, 8/3) : 차세정
- VAD 교육 (8/25~26)
- 고복합환우수직원 수상 (8/31) : 유혜진

NICU2

- 신생아중환자실 이거를 위한 모유유수 안내문 EDMS 등록
- 신생아중환자실2 격리방 신생아를 위한 군사 예전

SICU2

- 긍정적인 코칭 (7/14, 21) : 손수진 외 8명
- 육상 14인 무발생 목표 달성 (7/28)
- 외과-계중환자실 재활회의 (7/28)
- 흉나흉자 복직 : 안기주 (8/1), 조영은 (8/30)
- 부서 이동 (8/1) : 김다혜 (SICU2 → MAT)

CCU

- ELNEC Critical palliative care 과정 (8/11~12) : 김유진, 주석의
- AP Values Live학회 진행 (8/16~18)

RT

- 신원동행 자원봉사 (8/2) : 서희정
- 보수교육 (8/22) : 김은영
- Conference (8/27)
- 호피스료실 9월 업무강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토관ICU	서희정	886244	
MICU2/SICU1-2	서가진	886241	T.6244
일반병동	김은영	886242	

(앞 페이지에 이어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순간 저는 걱정되어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화를 피하는 환아에게 저는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어주었습니다. 다짐을 새로이 하고 환아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아질 것이고 우리 모두 환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다시 의자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ECMO를 100일 넘게 적용 후 환아는 기적적으로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합병증에 대한 우려 및 폐이식 criteria에 대한 고민으로 흉부외과에 여러 번 의뢰하고 상의하여 폐이식을 결정하였고,

기증자가 생기고 이식을 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 느꼈던 감격과 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꾸준히 해왔던 대로 열심히 치료를 한 결과 병동 전동을 고려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환아의 눈빛도 점점 생기 있어졌고 환아가 부를 때는 정말 급한 일이라고 담당간호사가 느낄 정도로 환아는 콧물 없이도 잘 지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환아는 격리방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 환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줍은 듯 웃으며 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시간을 견뎌준 환아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점차 호전되어 환아는 병동으로 전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오프 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직 환아가 이겨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굳건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환아가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환아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어려운 순간순간 잘 견뎌주어 고맙고, 나와 함께여서 참 좋았다고.



중환자실 품격직원 수상 소감

김경란 간호사 (NSICU)



우리 서울아산병원의 2017년은 '품격'있는 병원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Asan Global Standard (AGS)의 내재화를 바탕으로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해 온 우리 병원이 이제는 성장을 향한 열정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품격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자 우리 중환자실에서도 직종별로 품격 직원을 선발하였다. 영광스럽게도 내가 상반기 품격 간호사로 인정받아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상이 그렇듯이, 상을 받고 나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진다. 품격 직원으로 선발되었는데 과연 내가 진정한 '품격'을 갖추었는가, '품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품격'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등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품격(品格)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으로, 기품이나 교양 등과 비슷한 말로 쓰인다. 품(品)은 한자에서 보통 '입 구(口)'자가 세 개가 모여진 글자로 말이 쌓이고 쌓여 사람의 품성이 되고,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나는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말이 인품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단어선택 만큼은 품위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요즘은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SNS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는 줄임말이나 은어, 비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기분이 좀 나빴어'라고 말 하는 것과 '나 오늘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라고 말 하는 것에는 엄연히 격이 다르게 느껴진다. 단어 하나의 차이, 부정/긍정적 표현의 차이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말의 기품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인품을 말해준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곧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품성이 담긴 말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을 품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명언을 들은 적이 있다. 100% 공감되는 말이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우리 중환자실에서도 동료들끼리 감정적 소모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오해와 불신을 차단하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품격은 말과 행동이 품위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내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품격'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찾아보게 되었다. 어떤 책에서 '품격'은 소위 잘나고 부유한 사람이 갖는 여유가 아니라 갈수록 극과 극으로 분류되는 격한 사회,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무너지는 개인을 안정시켜 줄 치유제이자, 지속가능한

개인 경영법이라고 하였다.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나의 우수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폄하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자신을 똑바로 보는 노력 또한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진취적이고 근면한 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 어떠한 위기 앞에 휘어져도 꺾이지 않는 유연성, 긍정적 성향 등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품격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품격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각과 몸이 회복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하며, 절제와 포용, 배려, 정직, 신의, 배움, 글로벌 마인드 등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한 차원 높은 품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 우리 서울아산병원의 직원으로서 최고라는 자부심에 걸 맞는 품격을 갖추는 것이 아산인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높이고,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품납동 서당

♣ 이달부터 몇 개월은 복습으로 진행합니다.



- 우리 부서 김대리는 **낭중지추야**. 사람이 조용한데도 능력이 뛰어나서 모두가 알고 있지.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
- 요즘 동북아 정세가 **누란지위** 같은데 국회는 정쟁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야. (누란지위: 알을 포개 놓은 것 같이 형세가 위태로움)
- **능서는 불택필**이라 하지 않는가. 인공호흡기가 구형이라도 원리를 알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지. (능서불택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 도끼 갈아 바늘 만든다고 김선생은 10여년 **마부작침**의 노력 끝에 NEIM에 논문을 신게 되었습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 성취한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항생제 수는 항생제 내성균에 비해 **중과부적**이야.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손씻기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지. (중과부적: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한다)



타성에 젖으면 젖는 거죠. 제가 뭐 방수포도 아니고, 거스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좀 날카로웠다. 그렇지만 씩 웃는 살집남이다. 무슨 소리를 하려다

잠깐 말을 다시 먹는 눈치다. 좀 궁금한데. 아니 좀 많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했을까. 신경쓰이기 시작했어. 손수건 패턴도 마음에 들려고 하네. 안 돼. 그래도 저 남자는 너무나 피곤한 타입일 거야. 날이 더웠다. 카페 밖은 더 더웠다. 다들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그래, 뭘 밥을 여기서 더 먹냐. 잘 안 되면 시원한 맥주 마시러 나왔다고 위안 삼으면 되는 것이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모금만 마셔도 알코올 알려지가 있는 것처럼 얼굴이 벌개지는 선배마저 잠차고 있었다. 그래요, 선배. 벌써부터 유난 떠는 것보다는 맥주 대신 다른 음료 시키면서 적당히 굴면 될 겁니다. 좀 전의 건강상담실 컨셉보다는 나은 거예요. 나요? 나는 라거부터 한 잔 들이킬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랍니다. 젊은 남녀가 모인 이 무더운 초저녁, 뭐가 아쉽겠어요. 저 봐봐요. 웡니남이랑 안경남은 제일 젊은 아이한테 벌써 수작질을 부리잖아요. 재도 싫지 않은 눈치고.

술 좋아하시죠?

갑자기 훅 들어온다. 역시나 살집남이다. 밖에서 보니 피부가 아예 투명한 지경이다. 이런 살은 햇빛에 타는 게 아니라 벌겍게 익는데. 마치 바베큐처럼. 아, 라거에 바베큐를 시키는 거야. 닭이든 돼지든. 훈제향을 맡으며 싱그러운 라거를 쭉쭉. 나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난다. 어머, 당신. 오해하지만. 맥 보고 웃은 거 아니야. 아불싸, 이미 늦었다. 이 남자 오해하기 시작했다. 다시 정색할까. 그게 더 웃길 것

같긴 하다. 아마추어 같네. 이렇게 된 이상 본론만 꺼내야겠다.

근처에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이자카야를 안다고 했다. 그래, 거기엔 닭꼬치도 분명 팔 것이다. 다행히도 반대하거나 다른 곳을 추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한 블럭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고 했다. 맨 앞에서 살집남이 안내를 하고 마른 남자가 타박타박 뒤를 따른다. 나머지 인원들도 줄줄이 걸어가는데 맨 뒤에서 보니 이것 참 가관이다. 무념무상의 검은 개미 떼 같기도 하고, 피리 부는 소년이 생각나기도 하고. 맥주를 향해 달려드는 레밍들 같다고 상상한 순간 웃음이 나와 잇몸을 활짝 연 채 웃고 있었다. 방심한 것이지. 어차피 맨 뒤에 있어서 아무도 안 볼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때 마침 갑자기 뒤를 휩 돌아보는 살집남! 얼른 저도 따라 웃는다. 이보게. 맥 보고 웃는 게 아닌데. 이거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하야. 얼른 맥주가 마시고 싶다.

일행을 인도하던 살집남은 자신의 촉대로 인원을 배정하여 앉히기 시작했다. 막내 간호사를 가장 안쪽에 앉히고 그 옆에 웡니남, 바로 앞에 안경남을 앉혔다. 어찌 됐던 셋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이겠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용 간호사를 한 가운데 배치하였다. 와, 이 남자. 용도를 알고 있었어. 지나치게 활발한 여자의 목적이 만남의 성사가 아닌 아이스 브레이커였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 옆에 선배를 앉히고 마주보도록 마른 남자를 인도했다. 이 쪽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남자 옆에 나를 지정하였다. 그러고는 맞은 편으로 자신이 털썩 앉았다. 향수의 잔향이 몽근히 올라왔다. 향수 하나를 자신의 향이라 규정하고

죽여라 쓰는 타입일까. 여러 개를 구비하고 기본에 따라 뿌리는 타입일까. 맥주를 마시기는 하려나. 메뉴판이 두어 개 들어왔다. 가장 앞 쪽의 생맥주라는 글자를 보자 갈증이 더 밀려오는 것 같다. 얼른, 얼른 축였으면. 모두들 메뉴판을 정독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적막 가운데 특이하게도 마른 남자는 마치 논문을 훑는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맛있어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몇 가지의 안주류를 취급하며, 원산지는 정확하지, 어떠한 기준으로 메뉴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는지 곱씹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 갑자기 식탁 위로 올려 놓은 손에 무언가 들려졌다.

제 폰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번호 저장해주세요.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살집남이 바라보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움켜쥐었다. 빙빙 돌리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너무 저돌적이고 심지어 깔끔하다. 사실 전화번호 따위가 뭐라고 주저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랄까. 쉽게 응낙하는 것도 좀 별로다. 어차피 적어줄 번호지만 한 번 툽기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리하여 마음에 안 들면 어찌죠? 라고 적어주기로 한다.

타성에 젖기 전에 번호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장이 적혀 돌아온 폰이었다. 아, 어찌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잊지 않고 '타성'에 집중해준 것도 좋았고, 들이대는 태도도 내 스타일이다. 마지막 느낌표까지도 귀엽다. 귓볼이 따스해졌다. 번호는 무슨. 그냥 폰을 통째로 내 가방에 넣어버렸다. 어어, 하는 살집남을 살짝 무시한 채 직원을 불렀다.

일단 생맥주 다섯 잔에 사이다 하나 주세요.

아아, 얼른 맥주나 들이켰으면. 그렇다면 이렇게 붉어진 얼굴에 핑계라도 갖다 붙일텐데.

칭찬카드 1.

7월 9일 오전, 기다리던 중환자실 면회시간. 저희 가족은 아내와 소중한 면회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자인 저의 아내는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이름을 메모하라는 내용도 함께.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간호사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잊어 버릴까 급하게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주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근무강도가 무척이나 힘들고 바쁘고 신경이 곤두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독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의 아내는 물론, 저희 가족도 잊고 싶지 않은 김연주 간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칭찬카드 2

영화, TV 다큐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처음에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체장암이었고 이미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암치료에 희망을 가져보자던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그래도 아빠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산책을 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아직 헤어짐은 먼 곳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날, 아버지는 암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왔고 제가 돌아와 아버지를 뵈는 것은 신경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저를 알아보셨고 이미 며칠 전 저와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때 그 중환자실에서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신 분이 손진 간호사님이었습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저를 위로해 주며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마주하며 느끼게 되는 상실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곳에 계시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책

병동에 출근하니 나에게 전달된 책 한 권. 선물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선물을 받으니 더 기분이 좋아진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여러 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는 그들이 모두 병원 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정주원 약사님도 내과계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담당약사로 만난 사이다. 뜻밖의 선물에 너무 반갑기도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못한 약사님께 연락도 하게 되고, 만남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인 약사님께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고 싶다.

나에게 전해진 '모든 요일의 기록'이란 책은 카피라이터인 김민철 작가가 읽고 쓰고, 듣고 쓰고, 찍고 쓰고, 배우고 쓰고, 쓰기 위해 쓰는 카피라이터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같은 작가가 여행하면서 기록한 또 다른 책인 '모든 요일의 여행'이란 책과 거의 세트라고 보면 된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모두 읽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보라고 한다.

고된 업무와 중환자를 보는 중환자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래도 공감과 위로의 책을 찾아보게 된다. 에세이, 수필집,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서점에 가서도, 도서관에 가서도 자꾸 책을 들추게 되는 것이다. 요즘 들어 많은 책들을

읽었다. 그 중에 읽으면 힘이 될 것 같은 몇 권의 책이 있다. 박준 시인의 최신작을 즐겨, 정희재 작가의 TV 드라마에 나왔던 책을 즐겨 하다 결국 고른 책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이다. 보통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은 책이다. 프롤로그에서의 글처럼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다. 지나가다 마주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기분 좋게 만드는 김경란 선생님에게 나도 이 책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 응원을 보냅니다!



From. 오성희 간호사 (CCU)



To. 김경란 간호사 (NSICU)

★유심한 생활 정보★

이색 전시회 안내

Alice into the rabbit hole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가장 주목받는 일러스트 작가들 그리고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엘리스의 세계

- ✓ 일시 : 2017. 08. 08(화) ~ 2018. 03. 01(목)
- ✓ 시간 : AM 10:00 ~ PM 19:00
- ✓ 장소 :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지하2층 The Seouliteum



카페소사이어티 끝나지 않은 여름 이야기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그려진 "청춘. 그들은 어떤 생각, 어떤 이야기를 꿈꾸고 있을까? 이 시대의 젊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청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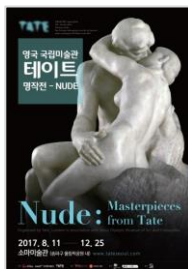
- ✓ 일시 : 2017. 06. 20(화) ~ 2017. 09. 10(일)
- ✓ 시간 : AM 11:00 ~ PM 19:00
- ✓ 장소 : 서울미술관 제1전시실



영국 국립미술관 테이트 명작展-NUDE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인 테이트미술관 소장품 중 18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몸(누드)"을 주제로 한 거장들의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등 총 12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이는 전시

- ✓ 일시 : 2017. 08. 11(금) ~ 2017. 12. 25(월)
- ✓ 시간 : AM 10:00 ~ PM 19:00
- ✓ 장소 : 소마미술관(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김애지 간호사 (SICU2)

병원 근처 맛집 (천호편)

안녕식당

연어와 덮밥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일본 가정식(특히 연어, 짬뽕이 유명해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9길 53 ☎ 02-473-0543 매일 11:30 ~ 21:30 - break time 15:30~17:00



스시아미

스시 맛집, 인생초밥 (특히 밥알이 보들보들하고 저렴한 가격이 좋아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9길 53 ☎ 02-478-3034 매일 12:00 ~ 23:00 - break time 15:00~17:00(평일) 16:00~17:00(주말)



유미마트

마트와 혼합된 특이한 세계맥주가게 (육사시미가 유명하고 안주가 맛있어요!) 서울 강동구 진항도로27길 4 ☎ 02-483-5172 평일 09:00 ~ 24:00 (화요일 휴무) 주말 09:00 ~ 01:00



몽땅족발

천호동 족발골목만 맛있는 족발집 (쟁반국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5길 5 ☎ 02-485-7669 매일 12:00 ~ 01:30 명절 휴무

